

마음이 물드는 여섯 가지 양상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가 아뢰야식으로 전환되고 생멸이 야기되는 상태를 기신론에서는 물든 마음(染心)이라고 한다. 이 물든 마음이 여섯 가지 양상으로 미세한 상태에서 거친 상태로 단계적으로 발전이 된다.

첫째는 '집착에 얽혀 물들어진 마음(執相應染)'으로 성문이나 연각들이 해탈한 경지와 보살들의 수행 계위(階位)인 십주(十住), 곧 신상응지(信相應地)에서 벗어나게 되는 물든 마음이다.

둘째는 '끊임없이 얽혀서 물들어진 마음(不斷相應染)'으로 믿음이 응해지는 지위에서 방편을 배워 닦아 '마음이 깨끗해진 지위(淨心地)'인 보살 십지(十地)의 초지인 환희지(歡喜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는 '분별지에 얽혀 물들어지는 마음(分別智相應染)'으로 계행이 완전히 갖춰진 지위(具戒地)에서 벗어나지 시작하여 전일적인 하나의 법계를 통달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상응하는 지위에서부터 물들어지는 마음의 자초지종을 관찰해 끊는 것을 배워 마음이 깨끗한 지위에 들어가서 조금씩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며, 여래의 지위에 이르러서 완전히 무명을 떠나게 된다.

물든 마음(染心)이란 망념이 일어나 마음이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고 오염되어 가는 단계를 원초적인 상태와 파생적인 상태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다. 상응은 원초적인 오염이고 불상응은 파생적인 오염이다.

본문에서 상응(相應)과 불상응(不相應)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상(知相)과 연상(緣相)이 같은 것은 상응이고 지상과 연상이 다른 것을 불상응이라 하였다.

상응이란 생각하는 주체인 마음이 지상(知相)이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인 객체가 연상(緣相)인데, 달리 말하면 심왕(心王)과 심소(心所)의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동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마음 자체가 깨끗하면 생각되어진 대상도 깨끗하고, 생각 자체가 오염되면 생각되어진 대상도 오염되어 둘 사이에 어떤 일치성이 있는 것이 상응이다. 불상응이란 아뢰야식이 심진여의 체(體)인 '각'과 심생멸의 상(相)인 '불각'이 각각 깨끗하고 더러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같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 물든 마음은 번뇌의 장애라는 의미를 가진다. 진여의 근본지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고, 무명의 뜻을 지혜를 장애하는 지애(智障)라 하였

다. 마음이 물들어서 망념인 번뇌가 되면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가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를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한다. 주관과 객관이 대립적으로 서게 되고 또한 차별의식이 생겨 본래의 평등성도 잃어버린다. 물든 생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명이 있고 이 무명이 결국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애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물든 마음은 모두 심생멸(心生滅)의 이야기이다. 이 생멸을 삼세(三細)육주(六住)에서 이미 미세한 것과 거친 것으로 구분하여 말한 바 있지만 다시 세(細)와 주(住)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요약하면 이렇다.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 거칠게 나타나는 경우는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객체가 뚜렷이 구분되는 상태에서 서로 응하는 관계가 성립될 때의 원초적인 망념이 파생적인 것으로 커진 것이다.

이러나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 반면 미세한 것은 주객이 완전히 나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원초적인 생각이다.

범부는 거친 것 가운데서도 거친 것이(粗中粗)이고 보살들은 추중의 세(1中細)와 세중의 추(細中粗)며, 부처님은 미세한 것 가운데 미세한 것(細中細)이라 하여 수행정도에 따라 망념의 두께가 다르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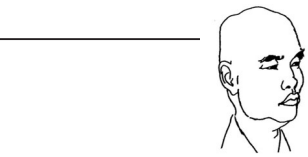
染心은 번뇌의 장애 지니며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수행에 따라 망념 두께 달라

계에서 원초적으로 물들어진 마음(根本業不相應染)으로 보살의 수행과정을 마치고(菩薩盡地) 여래의 지위에 들어갈 때(入如來地) 이 물든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전일적인 하나의 법계를 통달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상응하는 지위에서부터 물들어지는 마음의 자초지종을 관찰해 끊는 것을 배워 마음이 깨끗한 지위에 들어가서 조금씩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게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느질을 하며

새벽3시, 나는 바느질을 하고 있다. 어제 오후 도량에 쌓인 눈을 치우다 바지의 허벅지 부분이 5cm쯤 찢어졌기 때문이다. 낡은 옷이라 바지 안쪽에 다른 형질을 데고 찢어진 부분을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만 돌보지 않아 바늘귀에 실을 밀어 넣는다. 신문의 깨알글씨도 돌보지 않아 볼 수 있어 요즘도 독서삼매를 즐기는 편이다.

요리학원을 다닌 적은 없지만 즐겨 먹는 미역국이 때에 따라 조리법이 진화하여 다양해진 미역국을 먹고 있다. 사자암에 혼자 머물고 있어 부목 처사 뉘도 공양주 역할도 나의 차지이다. 그런 만큼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평소 생활신념은 게으름을 병으로 알고 있다. 하루에 한 차례 빨래하는 작업은 내게 있어 잔잔한 기쁨을 불러오는 소일거리이다. 세탁기가 두 대나 버티고 있지만, 내

시는 커피, 실록차 등도 완벽하게 셀프이다. 요사채 출입문은 잠금 없이 열려 있어 종교 따위는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드나들며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다.

사자암에 머문 지 11년째, 사자암 신도들은 자기 자신의 불공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정부 돈을 25억쯤 끌어들이 수도시설, 전기시설, 요사채, 종각 등을 지어왔지만, 관선론 따위는 물론 신도들의 도움 없이 진행해 왔다. 신도들하고는 상대가 누구이던 맞절하며 큰스님이란 소릴 사라지게 해 왔지만, 시장(市長)과 국회의원은 사자암 주지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사자암에 오면 주지를 큰스님이라 조심스레 부르며 어김없이 큰절을 해야 한다. 기관장들에게 엄격하고 매서운 호소리를 든 스승으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11년 동안 대학입시 합격기도 한 차례도 없었고 49재를 쌀 한말로 통

버리는 비움은 자유와 풍요를 안긴다 수행자는 '무소유' 의미를 살펴야 한다

의와 양말 등은 손빨래하는 즐거움이 있다.

청소하는 일 또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빨래나 청소는 온몸운동으로 건강지킴이 역할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암에는 진돗개가 4마리, 고양이 12마리도 넘게 나의 동반이 되어 살고 있다. 시간에 맞춰 그들에게 먹이주고, 물 갈아주고, 배설물 처리하고 적당히 운동시켜 주고 그들과 노니는 즐거움이 솔찬하다.

독서를 하다가도, 앉아 졸다가도 방문객이 대화를 필요로 하면 마음을 열어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을 이야기 한다.

때로는 무너진 돌담도 쌓고, 더러는 수리공이 되어 보일러와 전기, 수도시설을 점검해가며 느긋한 일상의 여유를 즐긴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항상 밥솥에 밥을 해 놓고 오고 가는 누구라도 식사할 수 있게 김치까지 썰어 준비해 두고 있다. 밥 퍼 먹고 급식을 즐긴 자의 뉘이다. 향시 라면도 여유 있게 준비해 어린이들의 길들여진 입맛까지 챙겨야 한다. 마

일했지만 사자암 주지는 넉넉하고 당당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다. 한국 대학생불교연합 동문회에서, 인드라망 서울법당에서, 전북불교대학에서 일주일에 한차례씩 3개월을 강의해 왔지만 강의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버리고 비우는 가난한 삶이 더할 수 없는 풍요와 자유를 내게 안기며 잔잔한 행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 같지만 진정으로 버리면 얻는 것이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있어 채찍이 되고 회초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무소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반야삼경〉의 첫 구절인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철저한 앞(知)과 봄(見)이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나는 두 고두고 잊지 말 일이다. 바느질을 하며 바늘 끝으로 담겨오는 온 세상의 넉넉함이 자유와 평화, 행복의 꽃송이로 피어오름을 느껴야 한다. 비어 있으나 가득하고 가득하나 넘치지 않기 때문이다.

보시는 지혜이자 달디 단 감로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⑪ 보시와 자비심

貪求佛智慧 心無有厭足 (탐구불지혜 심무유염족) 如是悲心施 能除無明障 (여시비심시 능제무명장) 開導愚冥者 使得智慧眼 (개도우명자 사득지혜안) 能滅諸結使 消伏老病死 (능멸제결사 소복노병사) 施與悲心俱 眾生之甘露 (시여비심구 중생지감로)

번역 부처님의 지혜를 탐구할지언정 마음에 싫어하거나 만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비심으로 보시도 이와 같다면 능히 무명(無明)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

습니다. 우매하고 아둔한 이에게 길을 열어주고 지혜의 안목을 갖게 한다면, 능히 모든 얻어매는 것을 없애게 되리니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굴복하는 것도 없읍니다. 보시와 자비심을 함께 갖추면 중생에게 달디 단 이슬이 됩니다.

해설 여기서 '시승품제1(施勝品第一)'이 끝을 맺는다. <대장부론>에서 제1품은 전체 내용의 주제이면서, 주요 내용을 계승으로 적은 것이다. 계승(屬屬)이란 외우기 쉽도록 시적 문장으로 글을 써 놓은 것을 이른다. 여기서는 5개의 글자를 4단락으로 묶은 5언4구의 문장형태로 하였다.

앞서, 저 괴안의 언덕에 도달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육바라밀이라고 했고,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가 으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보시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제바보살은 제1품을 통해 간명하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무상(無相)'의 보시다. 무상은 '무주상(無住相)'과 통하는 말이다. 무주상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자아(自我), 즉 자기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보시이다. 무상(無相)의 마음이 곧 평등심(平等心)이다.

둘째, 몸과 물질로 다 보시하되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보시다. 인색한 중생의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진정한 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 일체의 곳에 다 보시하되 방향과 장소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 당장에 어려운 이에게 하는 진실한 보시가 최선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일체의 때에 다 보시하되 보시하는 때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이다. 곤란한

이가 있다면 그 곤란한 이를 보는 그 순간이 바로 보시할 때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 보시를 일러 부사의(不思議)한 보시라고 말한다. 아울러 일체에 보시할지라도 그 보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보시라면 그 공덕은 겨자씨만큼의 과보만 있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결국, 보시는 대 자비심이 동반될 때 진정한 보시의 의미가 완성됨을 역설하였다.

제바보살은 1품의 결론을 지으며 무명(無明)의 장애를 벗는 실천적 방법으로 보시를 제시하였다. 무명은 '지혜 없음'의 다른 말이다. 또한 무명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시작이다. 연기법은 무명으로 부터 12연기가 일어나고, 슬픔과 걱정, 괴로움과 두려움, 싸우고 시기 질투하며, 애착을 통한 온갖 번뇌를 야기한다. 그런데, 한 방에 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보시(普施)'다. '널리 베푼다'는 의미의 보시는 지혜의 안목이자 중생에게 달디 단 감로가 된다 고 역설하였다.

(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2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2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 ② 중급 : 상응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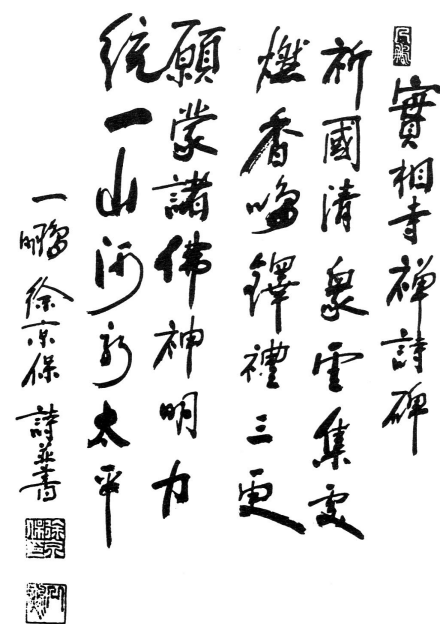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6년 양력 3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수강료 1년 60만원 (1학기 30만원))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5352-4692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